'화두와 실천' 창간호 21세기와 불교 특집

무크지 〈화두와 실천〉(발행인 효림) 창간호가 도서출판 행원에서 나왔다.

창간호의 주요내용은 「창간특집」 21세기와 불교, 그 화두를 찾아서 △21세기와 불교의 역할(박성배) △21세기 문경사의 전환과 전망(김용운) △21세기와 정신주의(이정복) 「실천논단」 변화하는 세계, 전환기의 삶 △불교의 자주사상과 통일의 길(지선) △다매체 다채널시대와 대중문화(최창섭) △교육의 위기와 교육개혁의 방향(이명주) △지방자치시대와 불교(심익섭) 「특별대담」 종교와 문학 그리고 불교문학 – 청화 최순열 유한근 박찬두 「창간시선」 오현스님 외 12인 「평론」 문학 – 한의 내연과 생명사상(장영우) 영화 – 동아시아 영화와 현실비관의식(송희복) 등이다.

성철스님 법문집 인기 서울도서전 불서 판매

'95서울국제도서전에서 판매된 불서 베스트10 가운데 성철스님의 법문집이 2종이나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트10는 다음과 같다.

△불자예절과 의식(김길원·불광) △금강경 강의(무비·불광) △자기를 바로 봅시다(성철·장경각) △죽는법을 모르는데 사는법을 어찌 알랴(오현·장승) △영원한 자유의 길(성철·장경각) △십우도(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 △버리고 떠나기(법정·샘터)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알기쉬운 불교	편 성 부	불교방송
2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낫 한	장 경 각
3	불교성전	편 찬 회	동국역경원
4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5	어린이 불교	능관 외	역경진흥원
6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 타	효 림
7	42장경	라즈니쉬	성 하
8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 영 한	전원문화사
9	선 100문 100답	진 제	파란나라
10	하산	홍 주	불 지 사

구입문의:(02)737-0695

21세기 여는 불서 '눈길'

인류 위기 극복위한 불교적 해답제시
서구 사상보다 월등…분야별 작업 필요

'불교를 알면 21세기 보인다' 등 미래 준비서적 나와

20세기는 이미 끝났다. 지난 시기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전쟁이 할퀴고간 시기였다면, 새로운 21세기는 분명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조화의 원리가 큰흐름을 이루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지향점과 방법을 불교에서 찾으려 한다.

그 대표적인 책으로는 세계적인 석학 토인비와 일본창가학회 인터내셔널회장 이께다 다이사꾸와의 대담을 묶은 〈21세기를 여는 대화〉(일조각)를 꼽을 수 있다.

탈유럽·탈기독교적 입장의 토인비와 법화경의 정신으로 시종일관하는 이께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못 긴장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사회 정치 철학과 종교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토인비는 "문명의 성쇠는 그 민족이 가지는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문명은 종교의 질에 의하여 결정난다"고 밝히고 "불교에 의한 생명활동의 분석은 현대서구의 어떤 분석보다도 상세하고 정밀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새로운 사상체계의 중심은 불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인비는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고 그것을 지탱하여 갈 종교는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여러 악과 대결하여 그것들을 극복하는 힘을 인류에게 주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충고를 잊지 않는다.

〈불교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 〈21세기를 여는 일곱가지 이야기〉도 눈여겨볼만 하다. 두 책 모두 한국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해 개설한 '21세기 불교아카데미'와 '모색 아카데미' 강좌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불교의 보편성과 미래의 비전'(이남곡·전불교사회연구소장) '새로운 문명관, 인간상을 찾아'(법륜·불교환경교육원장) 등 7편의 글로 구성한 〈…21세기가 보인다〉(정토출판사)는 불교사상이 현대문명의 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의 세계관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필자들은 이 책에서 현대사회의 근본모순은 "인간의 가공할 행위능력과 변치 않는 가치이념체계와의 괴리"이며, 이를 원인으로 전쟁과 굶주림 환경파괴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대립의 세계관과 힘을 추구하는 가치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 창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법륜스님은 새로운 인간상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실천에 책임을 지는 사람, 나아가 실천의 삶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 즉 '작은 보살'"이라고 규정한다.

〈21세기를 여는 일곱가지 이야기〉(모색 펴냄)는 세기말적 징후와 변화의 소용돌이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 나침판을 제공하고 인류미래의 지평을 그려내고 있어 '불교미래학'으로 읽힌다. '인간 자연 사회 문명관의 대전환'(김찬호·연세대강사,문화인류학) '연대의 철학, 진보의 비전'(송희식·불교사회연구소장) 등의 글로 구성했다.

이밖에 정병조교수가 최근 편낸〈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대원정사)도 주목된다. 이 책에서 정교수는 새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철학적 기초의 제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그 방향은 불교철학과 현대사상과의 만남이며, 이 만남을 통한 불교철학의 현대적 구축이라고 강조한다.

이밖에 불교밖의 책으로 〈21세기를 여는 상상력의 창조자들〉(이동욱 편, 여성신문사)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배영사) 〈21세기를 바라보며〉(라이샤워) 등이 새로운 문명을 전망하는 미래서로 읽을만 하다.

정성운 기자

양주동박사 학문세계 '한 눈에'

동대출판부 전집 묶어…전 12권중 5권 나와

'인간국보' 무애(無涯) 양주동 선생의 전집 전12권 가운데 1차분 5권이 '양주동기념사업회'(회장 김영배)에 의해 발간됐다. 동국대출판부 펴냄.

전집발간에는 이등림(동대명예교수) 이병도(〃) 김영배(동대교수) 이종찬(〃) 임기중(〃) 등 후학들이 참여했다. 간행위원장 임기중교수는 "무애선생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석학이면서도 시인이요, 수필가요, 비평가며, 번역문학자이면서 문장가요 뛰어난 논객이었다"고 기리고 "선생의 진면목을 살피고 국학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전집을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1차분은 '고가(古歌)연구' '여요전주(麗謠箋注)' '국학연구논고' '문주반생기(文酒半生記)·인생잡기' '지성의 광장' 등 5권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고가연구'는 일본인학자 小倉進平의 역저를 단번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향가연구의 집대성이다. 이 책은 우리 문화·사상의 원류인 신라가요 사뇌가등 향가를 어휘·어법·음운고증의 꼼꼼함을 거쳐 해설한 것으로, 小倉의 '향가 및 이두의 연구'에 나타난 오류를 일일이 거론해 반박하고 있다.

'고가연구'를 집필한 때는 무애가 재직하던 숭실전문이 폐교되던 시기였다. 무애는 수필 '연북록(硏北錄)'에서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고가 전수(全首)를 사벽에, 심지어 뒷간에도 붙여두고 자나 깨나, 앉으나 누우나, 그 풀이에 온 정신과 힘을 기울였다. 어떤 것은 밥먹다가 문득 깨쳐 일어나 한바탕 춤을 추어 집사람에게 미친 양 오해된 적도 있었다."

양주동기념사업회는 계속해서 '조선의 맥박/무애시문선/지나 명시선/영시 백선' '국문학정화/상주 국문학독본/문장독본' '민족문화독본(상·하)/T·S엘리어트 전집' '평론/번역본' '수필/시' '논문'등 2차분(6~12권)을 올해안에 완간할 예정이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1차분 출판기념회를 지난달 27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송석구 동국대총장, 무애선생의 장남 양인환박사, 현평효 전제주대총장, 김종길 고려대교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인간탐구 동양사상서 찾자"

옥타비오 파스 작품 '인도의 빛'등 2권 김홍근씨 곧 번역출간

◇옥타비오 파스

지난 90년 중남미 작가로는 다섯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멕시코의 시인 옥타비오 파스가 불교등 인도사상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조건을 탐구한 저서 〈두개의 불꽃:사랑과 에로티시즘〉과 〈인도의 빛〉이 문학평론가 김홍근씨에 의해 번역 출판된다.

파스의 두 저서는 지난 52년 그가 駐인도 멕시코대사로 인도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인도와 동양이 그에게 던져왔던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간추린 것.

파스가 인도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낀 것은 탄트라 불교에서처럼 우주의 진리가 남녀의 포옹같은 육체적 상징으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즉 만다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추상적인 진리가 가장 구체적인 형상과 색깔로 육화(肉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는 "시인 파스에게 만다라는 우주를 담고 있는 최고의 시"라며, "파스는 만다라에서 영감을 받아 시각시(視覺詩), 혹은 공간시(空間詩)의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이 자연·초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인도에서 파스는 진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관이 탄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한다.

두 저서의 번역을 거의 완료하고 출판사와의 계약을 남겨놓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일 백화도량에서 서구문명을 동양사상으로 바라보는 또다른 이방인이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스승이라 불리우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소설가 보르 헤스에 대한 강연을 갖기도 했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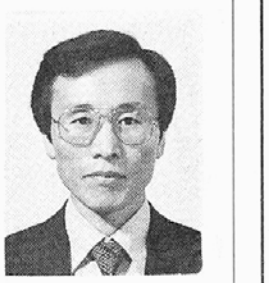
부모은중경

효 실천은 수행정진 기본 폐륜등 인류위기에 경종

예로부터 범죄·질병·전쟁·빈곤 등은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껏 그 해결은 커녕 공해와 인간성 상실과 같은 새로운 과제만 더 추가되었을 뿐 해결의 실마리마저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근간에는 어버이를 살해하는 패륜사건도 잦아지고 있어 인류의 내일이 암담한 상황이다.

그런데 석존께서 2천5백여 년 전에 설하신 '부모은중경'의 일깨움이 인류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득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처님께서 '부모은중경'을 통해 일깨워 주신 부모님의 열가지 큰 은혜는 첫째, 잉태하여 지켜주신 은혜 둘째, 낳을 때 고통을 받으신 은혜 셋째,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는 은혜 넷째,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을 뱉아서 먹여주신 은혜 다섯째, 아이는 마른 자리에 누이시고 자기는 젖은 자리로 나아가신 은혜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일곱째, 깨끗하지 않은 것을 씻어주신 은혜 여덟째, 자식이 멀리 떠나가면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쁜 일도 마다 아니하시는 은혜 열째, 끝없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은혜 등이다.


권 경 술
(수필가)

오늘날 효도교육은 부모님께 무조건 효도하라는 주입식 강요 아니면 좀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권선징악적 사례의 나열에 급급하다. 이는 자못 자녀들의 반발심을 유발하여 오히려 역효과의 소지가 없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지중한 은혜를 먼저 일깨워 줌으로써 효도하여야 하는 까닭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효도교육 방법의 일대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착안사항인 셈이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데서 비롯될 수 있고, 그 실천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구체화되므로 굳이 남의 사례를 나열하여 비교 우열을 촉발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삼가야 할 것이다. '부모은중경'에서는 구체적 개별적 효행방법의 나열을 지양하고 효행의 가장 수승한 방법으로 '부모은중경'을 읽고 또 거듭 펴낼 것을 강조하신다.

그리고 '부모은중경'은 불효에 이르는 과정과 그 유형 및 불효에 따른 지옥의 고통을 일깨움으로써 근기 하열한 중생으로 하여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의 길로 나아가도록 간곡히 이끄시는 내용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도집경'에서 석존께서는 '나는 세세에 모든 부처님네의 지극한 효행을 본받아 행했으므로 덕이 높아지고 복이 왕성해져서 마침내 부처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미루어 효도의 길이 곧 부처를 이루는 수행의 방편이 됨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 효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인륜을 깨달아 인간성을 회복함을 뜻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면 소아적 이기심이 순치되어 범죄·질병·전쟁·빈곤·공해 등등 인류위기를 잠재울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부모은중경'의 현대적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의보감에도
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중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햇차

"지리산 야생 작설차로
심신을 투명하게,
갓 볶은 햇차로 더욱 깊고
신선한 맛을 느껴보십시오"

지리산

작설차의 시배지인 지리산 청정지역의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차잎을 정성껏 채취하여 전통 제다법 그대로 가마솥에 덖고 멍석에 비비는 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자연건조 시킨 후, 참나무 숯불이 전해주는 은근한 온도에서 오랜 경험과 육감으로 두세 시간 정도의 열처리를 거쳐 탄생한 작설차는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 수제 작설차 제다법 3대째 전승 ■농림수산부지원 한국전통식품 개발사업체 선정
■청학제다원 설립 ■KBS 6시 내고향 출연상품 ■智異山 茶天地로 상호변경

오로지 전통 수제차만을 저희 **지리산 차천지**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작설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그객 여러분들과의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주문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茶天地

지리산 茶天地
본사: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50
전화 : (0595) 83-9665, 83-3478 / 팩스 : (0595) 83-9665
서울사무소 (02)934-9923 / 부산사무소 (051) 241-5051